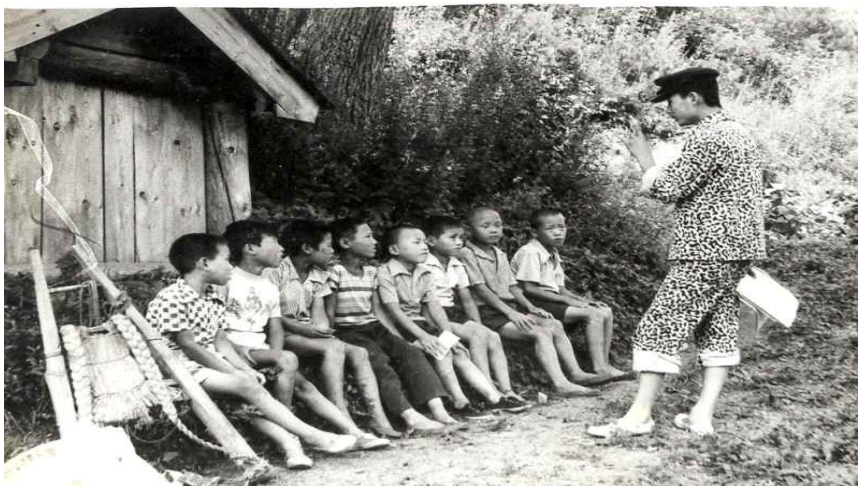
설립 92주년기념 사진전시회 [주일학교 이야기편]

1950년대 인쇄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시기라 칠판에 쓰여 있는 찬송가 가사가 인상적이고 오웅천 선생님(길교회 담임목사 은퇴)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지금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성경과 찬송가가 감사하다.



여름 더운 어느 날, 학생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이 보인다. 이때 신앙의 선대들이 닦은 터전 위에 오늘의 교회가 있다. 100년 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후대가 본다면 어떻게 평가를 할지를 생각해 본다.

1939년(주일학교 사진

앞 줄 우측에서 세 번째가 김영배 집사님, 네번째 검정 옷차림이 설립자인 정삼선 집사(전도자)님이다. 정 집사님은 서울기독교회 출신으로 제물포에 내려와 전기사업을 하면서 전도하여 교회를 조직했다. 그 때문인지 인천송현기독교회 예배당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었다.

1960년대 고등부 야외 예배

그 당시에 교복은 학교뿐아니라 외출할 때 입는 유일한 복장이었다. 친구들과 함께하니 즐거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가운데 강부경 장로님, 오른쪽에 박타연 권사님의 웃음이 환하다.

1963.2 학생회 졸업

학생회 졸업 예배를 마치고 찍은 사진으로 거의 60년된 흑백 사진인데 화질이 좋아 이 사진 속 학생이 된 착각이 든다. 황성주 목사님과 임경삼 장로님, 맨 끝 줄 가운데 고등학생 정근수 장로님 얼굴도 보인다.

1971. 12. 24

촛불 음악의 밤은 그 당시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고등부 주최의 음악 행사였다. 주위의 친구들을 초대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나눔과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만들어 성탄의 즐거움을 같이 나누었다.

1974년07월24일 어린이여름성경학교사일동

'모이자 !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로' 캐치 플레이즈의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기간 중 수고하는 교사들과 보조 교사 봉사자로 교복입은 여학생들 모습이 보인다. 사랑하는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

1978. 1. 8 초등부졸업

예배 시간에 잡담하고 떠는 녀석들인데 중등부로 올라가서 인지 아님 긴장한 탓인지 경직되고 의젓하게 사진 찍힌 모습이 아름다워 보인다. 어엿하게 성장하여 지금 40대 초 나이가 되었을 텐데…. 누구 누구의 얼굴이 보이나 ?

1979년 09월 고등부 송내 딸기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 속에서 우정과 행복감을 만끽하는 고등부 야유회. 사복 입은 학생들 속에서 교련복 입은 남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며, 7080 통기타 음악과 복음송이 들리는 듯하다.

설립 92주년기념 사진전시회 [주일학교 이야기편]

1980년05월 고등부 등반대회

상호간에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였다. 잠시나마 대입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날려 보내고 즐겁고, 행복하게 !!

1981 중등부 등산대회 (관악산)

70여명 중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관악산으로 등산대회 왔다. 장난기 가득한 개구장이 모습은 없고, 사뭇 진지한 모습이 귀엽고 흐뭇하다. 김동운목사님, 김정희전도사님의 모습이 보이고 세월이 기는 장사 없다더니, 장로님들과 권사님이 되신 분들의 이때 모습에 감개무량하다.

1981년01월 문학의 밤 '임마누엘'

수년 동안 내려온 고등부 학생들의 '임마누엘' 문학의 밤 행사는 고등부 학생들에게 문학을 통해 신앙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 행사로 자리매김 해왔다. 학업의 바쁜 틈을 내서 학생 스스로 준비했고, 자유로움과 창의성 , 재능을 발산할 수 있었다.

설립 92주년기념 사진전시회 [주일학교 이야기편]

1993년 송현 성가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중 하나인 송현 성가제.. 인천시내 10여개 교회 고등부 성가대가 참가하는 권위있는 연합행사였다. 야간자습 몰래 도망치고 찬양연습을 하곤 했다는 등 재미있고 후일담이 많이 있고, 시작 전 싱어롱 타임은 고등학생들에게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다.

1996 유치부 야유예배

교회에서 제일 어린 새싹들… 천진난만하고 해맑게 웃는 자유함 속에서도 사진을 찍는다고 집중하여 사진 찍는 모습에 함박웃음이 나온다. 좌측 앞줄에 있는 어린이가 장난감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니 역시 어린 새싹답다.

2015년 4월12일 유년부

김만선 목사님, 교사들, 유년부 어린이들이 노방 전도 후 비전센타 출입구에서 찍은 사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너무 아름답다.

2015. 7. 31. 초등부 썸머어드벤처

'Thank Jesus' 글귀가 적힌 티를 입고 썸머어드벤쳐에 참여한 초등부 학생들.. 복음을 만난 사람들답게 선언문도 눈에 띈다. - " ①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②선생님의 지도를 잘 따르겠습니다. ③개인 행동과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④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2015년 8월 8일 고등부 연합수련회에 참가한 교사와 학생들이다. 이제는 청년이 되어 대부분은 이 당시 애띤 모습이 없어졌지만, 이러한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큰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 감사하다.

2019.2 고등부 해외 아웃리치

2019년 2월 15일~20일까지 캄보디아성결신학대학에서 고등부에서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시행하였다. 400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김성은선교사(송현교회 파송)과 함께 안전하고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다. 참석한 고등부학생들에게도 큰 도전이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설립 92주년기념 사진전시회 [주일학교 이야기편]

2019. 2 고등부 수련회

값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성장하는 고등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쓰시지 좋은 그릇이 되길 원했다.

2021.3 초등부 로켓 심방

코로나로 주일학교 대면 예배와 활동을 못하지만 초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로켓심방으로 친구들은 만나 신앙 생활을 격려하고 준비한 선물을 주고 있다.

2021.7. 영유아가족부 온라인 여름성경

사상 초유의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서 전면 온라인으로 여름성경학교가 진행하게 되어 영상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 손길의 노고에 감사하다. 마스크 벗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대면 예배 드릴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한다.

설립 92주년기념 사진전시회 [주일학교 이야기편]

2021.7.영유아가족부섬머

2021.7. 영유아가족부 섬머어드벤처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름성경학교 !!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는 활동… 우리는 집에서도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방법, 상황, 환경, 장소와 관계없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여전히 역사하심을 확인한다.